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속악(俗樂) 편집의 특징과 정치성*

장지연**

- I. 머리말
- II. 『고려사』 「악지」 속악의 시점(時點)
- III. 『고려사』 「악지」 속악 편집의 정치성
 - 1. 삼국 속악의 특징
 - 2. 고려 속악의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고려사』 「악지」 속악 가사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들 가사들이 고려의 국왕권을 현창하고 찬미하는 내용으로 배치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고려사』 편찬자들은 해당 가사들을 이념적인 이유로 삭제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으나, 전 왕조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편집하였다. 「악지」에 수록된 가사들은 전체적으로 공민왕대~우왕대 정비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이후 큰 변화 없이 조선 초까지 그 악보들이 전승되어 『고려사』 「악지」의 바탕 자료가 되었다. 『고려사』 편찬자들이 교화론

* 이 논문은 2017년 국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借字” 에크리튀르와 『고려사』 악지 편집의 정치성」을 기초로 수정한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1장에서 고려가요가 훈민정음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고려 후기 이래 차자 에크리튀르의 지식 단절 및 위상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으며, 이 논문은 발표문의 2장을 확대 보충한 것이다. 논문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문의 2장인 『고려사』 「악지」에 집중하고, 차자 에크리튀르의 위상 변천 등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적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변풍으로서 속악이 갖는 의미 역시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려 속악의 내용을 변개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전해져 오던 속악의 전모를 왜곡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고려의 모습을 온전히 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의 속악 가사는 전체의 3/4에 달하는 31편이 지명을 제목으로 삼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역 배경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지명을 주제로 한 악장이 없는 조선과 차별화된다. 지명을 제목이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은 고려가 건국 초부터 여러 지역들을 포섭하고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었다. 삼국의 속악은 지역의 선택 기준 자체가 고려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을 삼국 각각의 속악이라고 묶어서 가장하게 한 것은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왕조 건국의 최대 공업이자 정통성으로 내세웠던 고려의 정치적 입장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삼국 속악’은 그 존재와 편제 방식에서 고려 속악의 정치성을 잘 드러내준다.

삼국 속악 이외 속악 가사 대부분은 고려의 질서에서 의미있게 배치된 지역들의 노래들로서, 우선 수도인 개경과 별경인 서경, 남경, 장단 등을 찬양한 노래가 많았다. 이들은 건국 설화의 성소이자 국왕의 순주를 통해 의례적으로 왕권을 현창하였던 장소들이었다. 또한 팔관회의 주요 연희 중 하나인 사선악부와 관련된 사선의 유적을 노래한 가사들, 공민왕대와 관련이 깊은 노래들도 있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궁극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찬미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이들을 자세히 수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고려사』 편찬자들은 원 악장의 찬미의 내용이나 맥락은 생략함으로써 악장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삼장>이나 <사룡>처럼 고려 국왕의 잘못된 정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달아서 전 왕조를 비판적으로 비추기도 하였다. 이는 전근대 시기 국가의 악(樂)이 가지는 정치성의 보편적인 면모였다.

핵심어: 樂志, 俗樂, 開京, 三京, 西京, 南京, 巡駐, 四仙.

1. 머리말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는 아악(雅樂), 당악(唐樂), 속악(俗樂)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유래 과정은 다르지만 아악과 당악이 중국의 악이라면 속악은 고려의 악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사는 수록되지 않고 노래의 의미나 창작 동기 등에 대한 설명만을 담고 있는 속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이 속악의 노래들 대부분이 가사가 수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민에서 바로 이 글이 시작되었다.

속악의 가사들이 수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기 연구에서는 조선 초 편찬자들이 교화론적 시각에서 이들 가사들을 탈락시켰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을 통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문가사였기 때문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¹⁾ 『고려사』의 속악 가사들에 대한 설명들을 볼 때, 당악보다 속악이 오히려 더 교화론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속악 가사들이 수록되지 않은 것은 가사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문자(文字)의 문제였다고 보는 근래의 연구들에 동의한다.²⁾

속악의 가사들이 우리말이어서 신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였기 때문에 수록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수록할 수 있었다.³⁾ 기전체 편찬의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도 편년체로는 각종 의례 등이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례에서 필수적인 악의 경우도 상세한 가사와 함께 수록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더구나 훈민정음이라는 도구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문을 섞어 판각할 수도 있었으나 『고려사』 편찬자들

1) 최미정, 『高麗俗謠의 傳承研究』, 계명대 출판부, 1999, 24~25면.

2) 전용우는 당악 가사들 매우 향락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데도 이는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속악은 「作歌之意」만 적은 것에 대해 악지 찬자의 독자성의 한계이자 유교적 사대의식이 노정된 것이라고 보았다(전용우, 「<高麗史> <樂志>의 사학사적 검토」, 『역사와 담론』 14(구 『호서사학』 14), 호서사학회, 1986, 75~76면). 그러나 속악에서도 한문체 가사는 다 수록되었으며, 성종대 편찬된 『악학궤범』 등에는 훈민정음으로 국문 가사가 수록되었던 만큼 독자성이나 사대의식으로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하겠다.

3) 훈민정음은 1443년(세종 25) 창제되었고, 『고려사』를 기전체로 편찬하려고 한 것은 1449년(세종 31) 전후였다(『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2월 5일(丙辰)).

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이미 국문을 판각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었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1445년(세종 27)에 완성되었고, 1454년(단종 2) 완성된 『세종실록』의 악보에 국한문체가 섞인 악장은 국문이 혼용되어 인간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고려사』 『악지』에 국문가사가 전부 수록되지 않은 것은 판각의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화론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내용의 가사들은 남지 않은 것에 비해 그다지 좋은 내용이라 할 수 없는 가사들이 남았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쌍화점(雙花店)>처럼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 없는 노래나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흔히 저평가되기 쉬운 연애 시가들은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에 수록된 것에 비해 기자(箏子)의 교화를 읊었다는 <서경(西京)>이나 <대동강(大同江)>처럼 조선에서도 충분히 중시하였을만한 가사들은 전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⁴⁾ 교화론의 입장에서 적합한 노래였다면 그 내용 전체를 한문 번역을 해서라도 그 가사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할 법도 한데, 조선의 편찬자들은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고려사』 『악지』 편찬 때 속악 가사를 신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은 고려의 악(樂)이 일차적으로 고려의 정치를 현창하고 정당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집 방식이나 서술의 길고 짧음에는 전 왕조에 대한 비판 의식과 새로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악지』의 제목들과 내용의 함의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고려사』 『악지』 속악의 가사들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그 내용이 분석된 바가 있지만, 주로 텍스트 내부의 관점에서 그 맥락이나 정서들을 분류하고 이에 천착하는 방식이었다.⁵⁾ 그러나 정작 『고려사』에 달려

4) 조선 초 속악은 고려 속악에서 전체 선율을 따고 가사만 바꾸거나 선율 일부를 발췌하거나 선법만 바꾼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장사훈, 『국악논고』, 서울대 출판부, 1966, 49~75면; 조규익, 『조선조 악장 연구』, 새문사, 2014, 25면 재인용). 그런 점에서 『악학궤범』 등은 악보로서의 성격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보다도 살릴 가치가 있었던 곡조를 중심으로 가사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전용우, 앞의 논문; 김선기, 「<高麗史> 樂志의 俗樂歌詞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김창원, 「<高麗史> <樂志>에 나타난 三國~高麗歌謠의 相」,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김명준, 「<고려사> <악지> 소재 당악과

있는 제목들이 갖는 함의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속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노래들을 채록하여 민심을 청취하는 논리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고려의 공정과 정치의례들 속에서 가장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들 제목과 노래의 의미는 함께 음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사』에 수록된 속악이 어느 시점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이 왜곡 없이 『고려사』에 반영되었는지를 일단 점검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사』 「악지」 속악 부분이 갖는 특징과 그 정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사』 「악지」 속악의 시점(時點)

『고려사』 「악지」 속악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얼마만큼 고려 시기의 원형을 담고 있는지가 일단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고려사』 「악지」가 대체로 고려 시기의 원형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 바 있는데,⁶⁾ 이 장에서 이를 먼저 간단히 점검해보고, 원형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로 어느 시기 정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악률(樂律)과 악장(樂章)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특히 정도전이 이에 깊이 관여하여, 건국한지 1년 여 만인 1393년(태조 2) <몽금척(夢金尺)>, <수보록(受寶籙)>, <남씨곡(納氏曲)>, <궁수분곡(窮獸奔曲)>, <정동방곡(靖東方曲)> 등의 악장을 제진하여⁷⁾ 이를 연주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새로운 악곡까지 창작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속악 선율은 그대로 차용하면서, 가사에 해당하는 악장만 새로 창작한 것이었다.⁸⁾ 이를 보면, 초기부터 기존의 속악 가사들을 수정하기보다는 새로이 가사를

속악의 영향론적 탐구와 속악가사의 독자성, 『동서비교문화학저널』 32,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2015.

6) 최미정은 『고려사』 「악지」의 기록이 현장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자료에 대한 침삭이나 의도적 왜곡은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고려 시대의 정보와 같은 자격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최미정, 앞의 책, 51~52면).

7)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 7월 26일(己巳).

8) 정동방곡과 남씨가 등은 서경별곡 및 청산별곡의 선율을 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최미정, 앞의 책, 34면).

만들고자 하였고, 고려 시기의 속악은 선율만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에서는 고려 속악의 경우, 여러 악보를 참고하여 실었다고 하였는데,⁹⁾ 다른 기록들에서도 속악과 관련한 악보에 대한 언급들을 찾을 수 있다. 1430년(세종 12) 박연(朴堧)은 보법(譜法)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곡조 이름만 남고 보법은 사라진 것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겨우 남은 것이 40여 성이니, 중외에 영을 내려 옛날 노래와 악전(樂典)을 바치도록 해서 상세한 완본을 갖추자고 건의하였다.¹⁰⁾ 한편 1433년(세종 15) 예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가 있었다.

聲樂의 이치는 시대 정치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慣習都監의 鄉樂 50여 성은 모두 신라·백제·고려 때의 俚語로서 오히려 그 당시의 정치의 잘잘못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족히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이 됩니다.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예악이 크게 시행되어 조정과 종묘에 雅頌의 樂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오직 민속 노래들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이 없으니 실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옛날 採詩之法에 의거하여, 각도와 주현에 명하여 詩章이나 俚語를 막론하고 五倫의 정칙에 합당하여 족히 권면할 만한 것과 아울러 간혹 짝 없는 사내나 한 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變風을 면치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찾아내어 매년 말에 채택하여 올려보내게 하십시오.¹¹⁾

위 건의를 보면,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관습도감에 향악 관련 노래들이 50여 성 정도 전해지고 있었다는 점, 둘째 속악을 채집하는 데 있어서 교화에 적합한 노래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풍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역시 변풍(變風)이라는 명목에서 채집이 장려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고려 시기까지의 속요들은 당시 정치의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는 좋은 증거로 취급되었다. 박연 역시 예조의 두 번째 지점과 같은 입장

9) “高麗俗樂考諸樂譜載之”(『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10) 『世宗實錄』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庚寅).

11) “聲樂之理 有關時政 今慣習鄉樂五十餘聲 竝新羅百濟高麗時民間俚語 猶可想見當時政治得失 足爲勸戒 我朝開國以來 禮樂大行 朝廟雅頌之樂已備 獨民俗歌謠之詞 無採錄之法 實爲未便 自今依古者採詩之法 令各道州縣 勿論詩章俚語 關係五倫之正 足爲勸勉者及其間曠夫怨女之謠 未免變風者 悉令搜訪 每年歲抄 採擇上送”(『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9월 12일(辛卯))

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려 속악은 내용의 선악에 따라 취사선택 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시까지 전래되어온 속악의 숫자에 대해 박연이 40여 성, 예조의 건의에서는 50여 성 정도를 꼽고 있는데, 이는 『고려사』에 수록된 속악 숫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¹²⁾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속악은 당대까지 악보에 전해진 곡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거의 포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³⁾

그렇다면 이 무렵까지 전해진 악보와 가사들은 언제 시점에 정비된 것이었을까? 일단 『고려사』에 수록된 속악에는 원 간섭기 충렬왕대 상황(<삼장(三藏)>)이나 조금 후대 인물인 채홍철(蔡洪哲, 1262~1340, <자하동(紫霞洞)>), 기철(奇轍, ?~1356, <총석정(叢石亭)>), 유탁(柳濯, 1311~1371) 등이 나온다. 특히 시대를 모호하게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장단(長湍)>의 경우는 공민왕대 백악 신경을 창건한 것과 관련이 깊으므로, 공민왕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¹⁴⁾

고려 후기 악(樂) 관련 정비는 일단 충렬왕대가 주목되는데¹⁵⁾ 이때가 몽골 침입기를 거치면서 체계를 잃은 악을 새로이 정비하는 시기였다면, 조선 초까지 남아 있었던 악보들은 공민왕대의 음악 정비와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공민왕대에는 음악 정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몇 차

12) 논자에 따라 『고려사』에 수록된 속악의 숫자에 대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44~46개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13) 1434년(세종 16) 예조에서는 당악이 47성, 향악이 급기를 아울러서 모두 82성이라고 하여, 본문의 기록들과 숫자가 많이 차이난다(『世宗實錄』 권63, 세종 16년 1월 24일(壬寅)). 그러나 여기에서 급기를 아우른다는 표현을 볼 때, 82성은 속도에 따라 구별되는 곡조(만기·중기·급기)들을 일일이 별개로 세어서 나온 숫자로 보인다. 이때의 기록이 악공들이 연습하고 시현보아야 할 가곡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볼 때, 82성은 가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14) 1360년(공민왕 9) 장단의 백악에 신경을 건설하고, 국왕이 바로 이어한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후술하겠다.

15) 충렬왕대의 음악 정비에 대해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 두 연구 참조(임주탁, 『고려시대 국어 시가의 창작·전승 기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이강한, 『충렬왕대의 시대상황과 음악정책』,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2014). 이 두 연구는 충렬왕대의 음악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충렬왕대가 고려 후기의 음악 정비에서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

16) 이강한도 앞의 논문에서 충숙왕~공민왕대, 우왕대 등의 음악 관련 조처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이강한, 앞의 글, 159면).

레 있었다. 먼저 이제현(李齊賢)의 권유를 시작으로, 민지(閔漬), 이색(李穡) 등이 속악 가사들을 소재로 소악부(小樂府)를 지은 것이 1357년(공민왕 6)~1358년(공민왕 7) 무렵이었다. 이 무렵은 공민왕이 기철 등을 복주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는 등 반원운동을 벌인 직후였다. 이제현 등이 소악부를 지을 무렵인 1359년(공민왕 8)에는 악공과 악기 등이 산일되었으며 이를 새로이 제작하기 시작하였다.¹⁷⁾ 이러한 시점의 소악부 짓기는 천하질서의 교체를 목도하면서 자국 문화를 재인식하려는 과정으로, 악공과 악기 등의 정비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361년(공민왕 10)에는 홍건적의 난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후 태묘(太廟) 구실(九室)의 신주를 환안(還安)하면서 태묘악장도 새로이 제작하였다. 또한 1367년(공민왕 16)~1368년(공민왕 17) 무렵에는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영전(影殿)을 지으면서 새로 지은 악장들을 연주하기도 하였고,¹⁸⁾ 몇 년 후인 1371년(공민왕 20) 태묘 친향 당시에 태묘악장을 다시 새로 작성하였다. 특히 1371년(공민왕 20)의 태묘악장 작성은 전 해에 명(明)에서 아악 연주를 위한 여러 악기들을 내려주고, 악공들을 연습시킨 것과 관련이 깊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 공민왕대에는 아악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속악의 확충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민왕대가 아니었다면 고려의 악을 정비했을 시기로는 우왕대를 꼽을 수 있다.¹⁹⁾ 우왕대에는 외교 관계의 변화에 따라 호악(胡樂)을 연주하게 하는 등, 악의 취사 선택이 정치외교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고려사』 「악지」는 공민왕대~우왕대 사이에 정비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이후 큰 변화 없이 조선 초까지 그 악보들이 대체로 전승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악보들이 『고려사』 「악지」의 바탕 자료가 되었으며, 『고려사』 편찬자들은 교화론을 중시하였지만 변풍으로서 속악이 갖는 의미 역시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려 속악의 내용을 변개하지는 않았다고

17) 『高麗史』 권70, 志24 樂1 雅樂 軒架樂獨奏節度 恭愍王 8년 6월 辛卯.

18)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4 恭愍王 16년 1월 丙午.

19) 창왕과 공양왕 대는 제위 연수가 짧기 때문에 악 정비는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변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집 과정과 “작가지의(作歌之意)”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조선인들이 고려의 속악을 대하는 정치적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III. 『고려사』 「악지」 속악 편집의 정치성

『고려사』 「악지」 속악에 실린 가사들은 삼국 속악까지 합쳐서 약 45편인데, 정확한 편수는 논자에 따라 44~46편까지 다르게 보고 있다. 편수 판단은 이 글의 논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증은 생략한다. 다만 <무고(舞鼓)>의 경우에는 <정읍사(井邑詞)>를 사용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백제 속악의 <정읍>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분류하지 않겠다. 무고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면 삼국 속악 14편을 포함하여 전체 45편이 된다.

먼저 속악 가사의 특징을 짚어보면, 전체의 3/4에 달하는 31편이 지명을 제목으로 삼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역 배경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지역 명칭을 담고 있는 악장이 없는 조선과는 매우 대비된다. 지명을 담고 있는 고려 속악의 특징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삼국 속악과 고려 속악으로 나누어 그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1. 삼국 속악의 특징

삼국 속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고려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전국의 여러 지방세력들을 통제하는 것에 부심해왔다. 신라 말 이래 전국 각지에서 성장한 지방세력들은 불교나 산천신앙, 풍수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수식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고려 초에는 이러한 다양한 신앙들과 풍수설들의 영향 속에서 왕권을 확립하고, 지방에 대응하여 국가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²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국 속악의 선택 기준 역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속악들은 삼국의 속악이라고는 하였으

나, 삼국 시기 당대의 궁중음악이라기보다는 고려의 시각에서 선택한 지역들의 노래들이 채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국의 속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삼국의 속악

번호	제목	분류	비고
1	東京	신라	계림부
2	東京		安康(경주)
3	木州		청주 속현
4	余那山		경주
5	長漢城		서울
6	利見臺		경주
7	禪雲山	백제	고창
8	無等山		전라도 광주
9	方等山		장성·고창·정읍 경계
10	井邑		정읍
11	智異山		지리산
12	來遠城	고구려	영원
13	延陽		영변
14	溟州		강릉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노래는 고려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나산>이나 <명주> 같은 경우엔 글을 읽어 과거 급제를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지하다시피 과거제는 고려 광종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삼국 시기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혹 이를 독서삼품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²⁰⁾ 독서삼품과 자체가 경주인들 대상이며 그다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래가 만들어질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이들 노래들이 삼국시기 이래 이 지역들에서 전승되어오던 노래라

20)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신구문화사, 2015, 제1장 참조.

21) 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2011, 268~273면.

할지라도, 그 채록한 기준 자체가 삼국에 있지 않으며 고려에서 중시된 지역들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려에서 중시한 지역들의 노래를 채록하며 이를 삼국의 속악이라고 역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백제 속악에 해당하는 <선운산>, <무등산>, <방등산>, <정읍>, <지리산>은 백제 당대의 중심지들이 아니다. 수도였던 사비나 웅진 일대 관련 노래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선택이 백제의 시각이 아니라 고려의 시각이었음을 방증한다. 이 지역들 중 무등산, 지리산은 산천신앙의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지리산은 왕건의 삼한 통합을 예언한 도선(道詵)이 비결을 전수받은 장소로서, 지리산신으로 추앙받는 성모천왕(聖母天王)같은 경우엔 때로 왕건(王建)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 한씨(韓氏)에 비정되기도 하는 등 고려 시기 가장 중시되었던 산 중 하나였다.²²⁾ 무등산은 통일신라시기에 소사(小祀)의 제사대상에 올랐고 고려에서도 국제(國祭)를 지냈던 장소였다.²³⁾ 더구나 무등산이 있는 이 지역은 건훤이 후백제를 세웠던 초기 중심지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방등산>의 경우에는 신라 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을 점거하여 양가 자녀들이 잡혀갔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치상 여기에서 지칭하는 도적이 건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그 도적이 건훤을 바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점은 그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안정시킨 것이 태조 왕건의 공덕이라는 점을 추앙하는 맥락에서 이 노래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⁴⁾

<선운산>과 <정읍>의 경우에는 고려 시기 해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 다 멀리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입지로 볼 때 이 인물들이 해로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서남부 지역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해로의 운영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해로망 등은 역시 고려 시기의 산물이었다.

한편 고구려 속악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 명주는 삼국 시기 고구려

22) 『東文選』 권68, 『靈鳳山龍岩寺重創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慶尚道 咸陽郡'.

23)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海陽縣.

24) 방등산은 고창현의 진산이자, 호남의 삼신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리산이나 무등산처럼 산천신앙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와 신라가 접경했던 요충지로서, 고구려가 처음 차지했긴 하였으나 6세기 무렵에는 이미 신라의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신라 말에 명주는 궁예(弓裔)를 지지한 지역으로서, 궁예 축출 후 왕건에게 불복했던 지역이었으나 왕건이 어립사리 지역세력인 순식(順式)을 포섭하고 왕씨 성을 하사하기까지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²⁵⁾ 명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원 귀속처도 오해될 정도로 삼국 시기의 기억은 상당히 희미해진 데 비해 고려 건국기에 왕건이 자신의 지지 지역으로 삼기 위해 고생했던 내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었다. 또한 내원성도 고구려 당시의 의미보다는 1117년(예종 12) 거란으로부터 고려에 귀속되었다는 의미가 기술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명주나 내원성은 해당 지역의 고려 귀속이 중요한 의미를 띤 노래들이었다.

이에 비해 연양은 지금의 영변 일대인데,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묘향산(태백산)을 포괄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묘향산 일대는 고려의 전통적인 산천 성지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 노래의 제목이 원래는 묘향산이나 태백산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목의 교체는 고려 속악 중 <양주>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묘향산 일대는 고려에서 중시하였던 단군, 부여, 고구려 설화들의 장소들로 비정되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영변도 호부 산천조에서 묘향산을 태백산이라고도 한다며 이 항목을 서술하였는데, 고적조에서는 고기(古記)들을 인용하여 태백산 항목에서 단군 신화와 부여 설화를, 우발수(憂渤水) 항목에서는 주몽 설화를 서술하고 있다.²⁶⁾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인용한 고기는 고려 시기까지 전래되고 있었을 자료였을 것이므로,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일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고려시기에 공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양이 교체된 제목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고려사』 찬자의 입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말 이래 단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새 왕조를 건국한 이들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선택하고 그

25) 명주는 신라 화랑인 사선(四仙)의 유적들이 남아 있던 곳들이기도 한데, 사선은 신라 때 화랑인 술랑(述郎)·남랑(南郎)·영랑(永郎)·안상(安祥)을 일컫는 것으로서 팔관회 때의 사선악부가 이들로부터 유래하였다.

2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寧邊大都護府’.

사적지들을 추앙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 한양에도 단군의 사적지라는 의미가 덧씌워진 바가 있다.²⁷⁾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정통성 경쟁에서, 고려에서 태백산이라는 지역을 자신들의 악(樂)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삼국의 다른 편들이 5, 6편씩인 것에 비해 유독 고구려만 3편인데, 편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고려 속악에 포함된 <서경>이나 <대동강>이 이 편에 수록되는 것이 더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평양 일대는 고려 초 태조 왕건에 의해 새로이 의미를 부여받은 이래로 고려에서 내내 중시해온, 개경에 버금가는 별경이었으므로, 이 두 편은 의도적으로 고구려가 아닌 고려 항목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그에 비해 신라의 경주는 고려 성종대 동경을 두며 별경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왕의 순주도 거의 없었고 서경이나 남경만큼의 위상을 갖지 못하였다. 신라 속악은 장한성과 목주를 제외하면 모두 경주 중심의 노래로서, 이는 경주의 고려 귀속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삼국의 속악은 원래 그 지역들의 유서 깊은 민요였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지역의 선택 기준 자체가 매우 고려의 시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이들을 삼국 각각의 속악이라고 묶어서 가창하게 한 것은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왕조 건국의 최대 공업이자 정통성으로 내세웠던 고려의 정치적 입장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삼국 속악’은 그 존재와 편제 방식에서 고려 속악의 정치성을 잘 드러내준다.

2. 고려 속악의 특징

삼국의 속악 뿐만 아니라 고려 속악에 수록된 지역들 역시 고려에서 중시되던 지역들이었다. 고려 속악을 지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7) 장지연, 앞의 책, 260~263면.

28) 대동강은 고려조에 들어온 이후 지어졌다는 점이 특별히 기입되었으나 서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 이로 본다면 적어도 서경은 고구려 속악에 포함될 수도 있었는데도 굳이 고려 속악에 포함시킨 것이다.

<표 2> 고려 속악 분류표

번호	제목	분류	비고
1	西京	고려 別京 巡駐 관련 지역	
2	大同江		
3	楊州		
4	長湍		
5	五冠山	開京 관련 지역	
6	金剛城		
7	松山		
8	禮成江		
9	紫霞洞		채홍철 지음
10	叢石亭	四仙 유적 관련 지역	기철 지음
11	寒松亭		
12	月精花	기타 지역 배경 있는 것	진주, 진주사록 위제만 사연
13	定山		공주 속현
14	元興		화령
15	長生浦		전라도 순천부, 유탁 지음
16	處容		경주
17	長巖		충남 서천, 두영철 지음
18	安東紫靑		안동
19	鄭瓜亭		동래, 정서 지음
20	動動	기타	
21	無碍		
22	伐谷鳥		예종 지음
23	居士戀		
24	沙里花		
25	濟危寶		
26	冬栢木		채홍철 지음
27	風入松		
28	夜深詞		
29	翰林別曲		
30	三藏		충렬왕대 지음
31	蛇龍		충렬왕대 지음

먼저 이들 지역들 중 고려 수도인 개경(開京)과 순주하였던 별경(別京)인 서경(西京), 남경(南京), 장단(長湍)에 해당하는 노래가 9곡이나 된다. 이 중에서도 고려 수도인 개경 및 그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가사가 <오관산>

<송산>, <예성강>, <금강성>, <자하동> 등 5곡이다. 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가사가 수록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수도 개경의 노래들이 고려에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려 건국 설화와 매우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신성한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노래가 왕실의 현창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성강은 왕건의 선조인 강충(康忠)이 이 지역 영안촌(永安村)의 부잣집 딸과 결혼한 유래가 있는 장소였으며, 작제건의 아버지인 당(唐) 숙종(肅宗)이 정박했던 전포(錢浦)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의 무덤(昌陵)이 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예성강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은 오관산이다. 왕건의 선대인 강충과 보육, 그리고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이 태어난 곳이 오관산 마하갑이다. 강충은 이곳을 영업지(永業之地)로 삼아 누천금을 모았으며, 보육의 딸 진의가 이곳에서 당 숙종을 만나 작제건을 낳았다. 이 일대에는 왕건의 선대를 기리는 사찰들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표 3> 高麗世系를 통해본 王建 先代の 이주과정

인물	내용요약
虎景	백두산에서부터 遊歷하다 扶蘇山 左谷에 자리잡음
康忠	西江(예성강) 永安村 부잣집 딸과 결혼 五冠山 摩訶峯에 거주. 신라 監干 八元의 풍수에 의한 건의로 부소군을 부소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고 산에 소나무를 심고 송악군으로 고침. 마하갑 저택을 왕래하며 살아 감
寶育	平那山(구룡산/성거산) 북쪽 기슭으로 돌아와 살다가 다시 마하갑으로 옮김 ↳ 보육의 딸과 당 숙종(혹은 선종) 사이에서 작제건 낳음
作帝建	서해 용녀와 결합 永安城에 거주하다 송악산 남쪽 기슭에 새 집을 짓고 왕래하며 거주 용녀가 처음 우물을 판 곳: 大井 송악산 남쪽으로 이사 후 우물을 판 곳: 廣明寺
龍建 (세조)	송악산 옛집에 살다가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하였는데 곧 延慶宮 奉元殿임

* 『高麗史』 卷首, 高麗世系를 바탕으로 작성함.

** 장지연, 앞의 책, 52면 <표 1> 재인용.



<그림 14> 廣輿圖(古 4790-58) 중 開城府

* 장지연, 앞의 책, 55면 <그림 3> 재인용.

이러한 오관산과 예성강에 대한 노래에서 먼저 <오관산>은 효자 문충(文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효자전에 실려 있다. 문충과 그의 어머니는 오관산 영통사(靈通寺) 골짜기에 살았는데, 개성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문충이 아침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하고 잠자리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와 같은 오관산의 이야기가 효(孝)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성강의 이야기는 여성의 정절(貞節)을 담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수도 주변의 왕실의 성지들에서 효와 열의 덕목들을 담은 노래들을 추출해냈다는 것은, 고려의 국가에서 표창하려던 덕목이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경의 신성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소는 송산(松山), 즉 송악이다. <송산>이야말로 가사에 고려 정치의 상징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악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송산은 개경의 진산이다. 태조가 개경에 도읍한 이래로 여러 대에 걸쳐 서로 이어서 국가의 운세를 연장하였다는 것이 노래를 지은 까닭이다.²⁹⁾

송악은 고려 건국 설화에서 도선이 왕건의 삼한 통합을 예언한 상징적인 장소이며, 고려 시기 내내 이곳의 지덕이 나라와 왕실의 국운과 동일시되며 인식되어왔던 지역이다. 위 설명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고려 왕실 권력의 상징적 정통성을 이곳에 대한 노래를 통해 구현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노래가 왕건의 선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소들에 대한 것이라면, <금강성>과 <자하동>은 개경을 읊기는 하였으나, 약간 맥락이 다르다. 금강성에 대해서는 「악지」에서 거란 침입을 물리친 후 현종대 처음 나성을 쌓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과 몽골 항쟁 후 개경으로 돌아와서 지은 것이라는 두 가지 설을 수록해놓았다.³⁰⁾ 그러나 개경 환도설의 경우에는 몽골군이 성곽의 중수 등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정황이 그다지 부합하지 않고, 현종대 설이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경 전체를 둘러싸는 23km 둘레의 나성은 현종대 약 20년의 건축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당시 거란군을 퇴치한 후 한껏 국가적 분위기가 고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노래에 부합한다.

한편 자하동은 몇 가지 지점들이 중첩되어 있다. 일단 이곳은 안화사(安和寺)와 왕륜사(王輪寺)가 있던 골짜기인데, 안화사는 태조가 후백제에 볼모로 갔다가 죽은 동생 왕신(王信)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유서 깊은 절이다. 이 절이 유명해진 것은 1117년(예종 12)에 대대적으로 중창하면서 송휘종의 어필과 재상 채경(蔡京)의 글씨를 받아 편액을 달면서 부터였다. 이후에도 여러 국왕이 행향(行香)을 하고 진전을 설치하는 등 이곳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였다.³¹⁾ 왕륜사 역시 태조가 세웠던 개경십찰(開京十刹) 중 하나로서 교종 교단의 총본산이 되었고, 공민왕대 노국대장공주의 영전이 있던 인근이었다.³²⁾ 그뿐 아니라 이 지역에는 구재학당(九齋學堂)이 위치하고³³⁾ 워낙 경치로 유명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 문인들

29) “松山 開京之鎮也 自太祖都開京 累世相承 國祚延長 歌之所由作也”(『高麗史』 권71, 志25 樂 2 俗樂 松山)

30) 『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金剛城

31) 『高麗古都徵』 권7, 寺院 安和寺.

32) 『高麗古都徵』 권7, 寺院 王輪寺.

3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下.

이 이곳에서 노닐었던 경험을 시문으로 읊었다.³⁴⁾ 이처럼 자하동에는 여러 다양한 장소적 의미가 담겨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후대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구재학당에 대한 문인들의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하동곡>은 고려 후기의 채홍철이 자신의 집인 중화당에서 기로연을 하면서 지은 것인데, 채홍철이란 인물이 그렇게 대단하게 기억될 인물이 아닌데도 이 노래가 오래 기억된 것은 해당 장소를 향유했던 문인들의 경험이 다양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초에 개경을 방문했던 여러 유신들이 자하동을 방문했던 것은 그러한 기억의 전승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래 안화사와 왕륜사 등 고려 왕실의 중요한 절들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한편 고려에서는 개경 이외에 서경, 동경, 남경 등의 3경을 설치해서 국왕이 때때로 순주하는 별경으로 삼았다. 이중 성종대 설치된 동경은 삼국 속악 중 신라에 들어가 있으나, <서경>과 <양주>는 고려 속악에 들어가 있다. 서경과 남경 중에서도 고려 태조 왕건 이래 가장 중시되어 온 지역은 서경이었다. 그런데 이 노래들에 대한 『악지』의 설명을 보면, 모두 이곳에 기자가 봉해졌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교화를 제외한 설명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원 노래의 핵심은 군주에 대한 송도(頌禱)였던 것으로 보인다.

[西京] 西京은 古朝鮮이니 곧 箕子가 봉해진 땅이다. 그 백성들이 禮讓에 익숙하여 임금과 부모, 어른을 높이는 의리를 알아서 이 노래를 지었다. 인애와 은혜가 충분하게 창달하여 초목까지 미쳤으므로 비록 부러진 버들가지라도 살아 날 뜻이 있음을 말하였다.³⁵⁾

[大同江] 周 武王이 殷의 태사 箕子를 朝鮮에 봉하여 8조의 가르침을 펼쳐서 禮俗을 일으켰으므로, 朝野에 일이 없었다. 인민들이 기뻐하여 大同江을 黃河에, 永明嶺을 嵩山에 비유하며 그 임금을 頌禱하였다. 이는 고려로 들어온 후에 지은 것이다.³⁶⁾

34) 자하동은 이제현이 꿈은 송도팔경 중 하나[紫霞尋僧]이기도 하다.

35) “西京古朝鮮卽箕子所封之地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義 作此歌 言仁恩充暢 以及草木 雖折敗之柳 亦有生意也”(『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西京)

먼저 <서경>에서는 인애와 은혜가 창달하였다고 하였으나, 누구의 인애와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초목까지 미치는 인애와 은혜란 결국 임금의 은혜일 수밖에 없으므로, 백성의 시선에서 임금의 은혜를 기리며 송축하는 노래라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동강>에서도 노래의 핵심은 백성들이 대동강과 영명령을 모티브로 임금을 송축하였다는 지점이다. 결국 이 노래들은 고려의 국왕들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그 송축의 계기를 기자의 교화로 설명하는 것은 고려 후기 이후의 시각이다. 고려 시기 내내 서경은 동명왕의 사적과 신이함으로 칭송받았던 것에 비해, 기자의 장소라는 의미는 후대에 와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³⁷⁾

한편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주>이다.

楊州는 고려의 漢陽府이다. 북쪽으로 華山에 거하고 남쪽으로 漢水에 임하여, 토지가 평탄하고 부유하고 변화한 것이 다른 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양주의 남녀들이 바야흐로 봄을 맞아 노는 것을 즐기며 서로 즐거워하여 이를 노래하였다.³⁸⁾

양주는 한강 이북 지역으로서, 12세기 초 숙종대에 남경이 설치된 곳이다. 이로 볼 때 『악지』의 <양주>는 남경을 가리킬 가능성이 큰데, 실제 이색의 시 등을 볼 때 <남경별곡(南京別曲)>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내용은 단순히 봄을 맞아 놀기를 좋아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태평성대를 불러온 군왕을 송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그런데 <양주>라는 명칭을 쓰고 <남경별곡>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가렸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수도에 대한 경쟁 의식에서 비롯한 것

36) “周武王封殷太師箕子于朝鮮 施八條之教 以興禮俗 朝野無事 人民權悅 以大同江比黃河 永明嶺比嵩山 頌禱其君 此入高麗以後所作也”(『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大同江)

37)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나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은 고려에서 서경을 동명왕의 사적으로 보아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에 비해 12세기 초 숙종대 서경에 기자를 모시는 기자사가 건립된 적이 있고 이 이전에도 기자에 대한 인식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 말 이전까지 기자와 서경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38) “楊州卽高麗漢陽府 北據華山南臨漢水 土地平衍 富庶繁華 非他州比 州人男女 方春好遊 相樂而歌之也”(『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楊州)

39) 여운필, 『고려시대의 한시와 국문시가』,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16면.

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수도 한성은 고려의 남경에 설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고려사』에는 남경 관련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숙종대 남경 설치를 주장한 술사 김위제(金謂禪)가 거론한 각종 도참서들의 내용이 축약 없이 그대로 수록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⁴⁰⁾ 그런데 『고려사』에 남경 관련 기록이 상세한 것은, 이곳이 이씨가 새 나라를 건국한 후에 수도로 삼게 된다는 예언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⁴¹⁾ 새 왕조를 위해 예비된 풍수적 명당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새 왕조의 필연성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경별곡> 원곡은 고려 왕실을 위한 찬미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선에서 편집할 때 은폐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은 앞서 고구려 속악인 연양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장단> 역시 <서경>, <남경>의 연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太祖가 순행하며 민간의 풍속을 살피시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니,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였다. 후대 왕이 장단에 노니니 악공들이 祖聖의 덕을 노래하고 頌禱하고 規戒하였다.⁴²⁾

『악지』의 설명만으로는 장단은 태조가 잠시 방문하였던 곳이고 후대 왕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은 것처럼 나온다. 그러나 사실 장단은 공민왕대 백악 아래 신경(新京)이 설치되면서, 공민왕 이래 여러 국왕들이 순주하였던 장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려 말 남경과 순주 대상지로 경쟁했던 유일한 지역이었다.⁴³⁾ 공민왕은 1360년(공민왕 9) 장단 백악에 신궁을 지어 11월에 이어한 바 있었다. 이곳은 이후 신경으로 칭해지며 여러 국왕들이 방문했던 지역이었다. 공민왕은 백악으로 이어한 이듬해 2월에 내린 교서에 서는 태조의 훈계를 본받고 도선의 말을 써서 이곳에 신궁을 지어 대명(大

40) 『高麗史』 권122, 列傳35 方技 金謂禪.

41) 이씨가 새 왕조를 개창한 후 수도를 삼을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숙종대 남경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압승을 펼쳤다는 것은 용비어천가에도 수록된 전설이다.

42) “太祖巡省民風 補助不給 與民同樂 民思其德 久而不忘 後王遊長湍 工人歌祖聖之德 因以頌禱 而規戒之”(『高麗史』 권71, 志25 樂2 俗樂 長湍)

43) 조선 태조대 한양을 천도지로 정했던 답사 여행에서도 마지막에 장단을 거쳐 개경으로 돌아왔다.

命)이 무궁하게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⁴⁴⁾ 즉 장단 신경은 태조의 권위에 의지하여 공민왕의 왕권을 현창하고 풍수적 행위로서 국운을 연장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설치된 것이었다. 공민왕은 시기적으로도 조선과 가깝고 백악 신경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에 이미 다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왕(後王)’이라고만 지칭하고 이를 정확히 서술하지 않은 것은 이 역시 고려 왕실 찬미가의 의미를 축소하고 한양의 경쟁 장소였던 점을 사상시키려던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주목되는 노래로는 <원흥>, <장생포>, <안동자청> 등을 들 수 있다. <원흥>은 지역상 쌍성총관부 수복과, <장생포>는 유탁의 이야기로 볼 때 공민왕대 왜구 침입의 격퇴와 관련이 깊다. <안동자청>은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 때 안동까지 몽진하였던 것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노래들은 공민왕의 간난(艱難)과 업적을 상징하는 노래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악지』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서 텍스트 외적 맥락을 짐작할 수가 없다.

한편 속악 중 <총석정>, <한송정>의 경우에는 사선(四仙)의 유적으로 이곡(李穀)도 방문했던 유명한 장소들이었으며,⁴⁵⁾ 총석정의 설명에서도 노래의 작자인 기철이 방문하여 사선의 유적을 둘러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고구려 속악에 속한 <명주>, <총석정>, <한송정>은 사선의 유적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성지라는 점에서, 이들 성지들을 묶어서 연향 때 가창되던 전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선(國仙)들이 담당했던 사선악부(四仙樂府)가 팔관회(八關會) 때 중요한 연회였다는 점⁴⁶⁾ 이들 지역의 노래들이 속악으로 편제된 것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사』 악지에는 고려에서 성소로 꼽거나 지역적으로 중시했던 곳들이 가사로 포괄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 각 지역들이 표문과 방물을 바치며 고려 국왕의 권위를

44) 공민왕대 남경 천도 시도와 백악 신경 설치에 대해서는 장지연, 앞의 책, 207~212면 참고.

45) 『東文選』 권71, 『東遊記』.

46) 팔관회 사회일의 백회 공연의 핵심이 사선악부의 공연이었다(이혜구, 『의례상으로 본 팔관회』, 『예술논문집』 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1962, 92~108면; 한홍섭, 『<고려사>에 나타난 팔관회의 음악양상 및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2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330~331면 재인용).

구현하던 팔관회적 질서를 상상케 한다. 또한 수도인 개경과 국왕 순주경에 해당하는 서경, 남경, 그리고 고려 말에 건설된 장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풍수적 차원에서 중시해왔던 순주경이 고려 왕권을 현창하는 요소로서 악에도 반영되었을 만큼 중시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서술되지 않고 애매하게 얼버무리지거나 제목이 바뀐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 속악에서 구현하고 있었던 고려적 질서와 고려 왕권의 정통성을 최소화하여 기록하려는 조선의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자세하게 그 내력이 기록된 <삼장>과 <사룡>은 그 반대적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노래들은 충렬왕대 측근들이 왕에게 아첨하고 연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등의 내용이 무척 자세하다. 실제 노래의 가사 역시 건전하지 않고 음란한 편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은 바람직한 군주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었을 현종, 공민왕, 태조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수록되지도 않았는데 충렬왕 관련 내용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수록되었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는 폐행(嬖幸)들이 국왕의 생활과 정치를 장악했던 충렬왕대, 나아가서는 고려 왕실의 문제점을 부각 시킴으로써 이를 더욱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반사 이익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태도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지녔던 조선의 편찬자들은 『고려사』 「악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그 내용에 일일이 평가를 가하여 수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당시 전해져오는 속악의 전모를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려 악(樂)의 모습을 온전히 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조선에서는 고려의 속악을 편집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략과 과장, 얼버무리, 콘텍스트의 배제 등의 서술 기법으로 고려 찬미가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의 악장을 통해 조선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악장을 정치적인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반영한다. 이는 고려가 삼국 속악을 편집하였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의 악장 전수는 그만큼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악(樂)이 가지는 정치성의 보편적인 면모였다고 생각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려사』 「악지」 수록 가사들은 전체적으로 공민왕대~우왕대 무렵의 정비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이후 큰 변화 없이 조선 초까지 그 악보들이 전승되었다. 이 악보들이 『고려사』 「악지」의 바탕 자료가 되었다. 『고려사』 편찬자들이 교화론적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변풍으로서 속악이 갖는 의미 역시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려 속악의 내용을 번개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전해져오던 속악의 전모를 왜곡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고려의 모습을 온전히 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의 속악 가사는 전체의 3/4에 달하는 31편이 지명을 제목으로 삼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역 배경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지명을 주제로 한 악장이 없는 조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지명을 제목이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은 고려가 건국 초부터 여러 지역들을 포섭하고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었다.

삼국의 속악은 지역의 선택 기준 자체가 매우 고려의 시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이들을 삼국 각각의 속악이라고 묶어서 가장하게 한 것은 ‘삼한 일통(三韓一統)’을 왕조 건국의 최대 공업이자 정통성으로 내세웠던 고려의 정치적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삼국 속악’은 그 존재와 편제 방식에서 고려 속악의 정치성을 잘 드러내준다.

삼국 속악 이외 속악 가사 대부분은 고려의 질서에서 의미 있게 배치된 지역들의 노래들로서, 우선 수도인 개경과 별경인 서경, 남경, 장단 등을 찬양한 노래가 많았다. 이들은 건국 설화의 성소이자 국왕의 순주를 통해 의례적으로 왕권을 현창하였던 장소들이었다. 또한 팔관회의 주요 연회 중 하나인 사선악부와 관련된 사선의 유적을 노래한 가사들, 공민왕대와 관련이 깊은 노래들도 있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궁극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찬미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이들을 자세히 수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고려사』 편찬자들은 원 악장의 찬미의 내용이나 맥락은 생략함으로써 악장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에 비해 <삼장>이나 <사룡>처럼 고려 국왕의 잘못된

정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달아서 전 왕조를 비판적으로 비추기도 하였다. 이는 전근대 시기 국가의 악(樂)이 가지는 정치성의 보편적인 면모였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太祖實錄』

『世宗實錄』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古都徵』

2. 논저

김명준, 「<고려사> <악지> 소재 당악과 속악의 영향론적 탐구와 속악가사의 독자성」, 『동서비교문학저널』 32,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5, 85~112면.

김선기, 「<高麗史> 樂志의 俗樂歌詞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33~58면.

김창원, 「<高麗史> <樂志>에 나타난 三國~高麗歌謠의 相」, 『고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29~52면.

여운필, 「고려시대의 한시와 국문시가」,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5~36면.

여운필,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2011.

이강한, 「충렬왕대의 시대상황과 음악정책」,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2014, 117~163면.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전승 기반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신구문화사, 2015.

전용우, 「<高麗史> <樂志>의 사학사적 검토」, 『역사와 담론』 14(구 『호서사학』 14), 호서사학회, 1986, 55~83면.

최미정, 『高麗俗謠의 傳承研究』, 계명대 출판부, 1999.

한홍섭, 「<고려사>에 나타난 팔관회의 음악양상 및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2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325~356면.

The Political Nature of Editing 『Goryeosa』 『Akji』 Article of <Sokak>

Jang, Ji-Yeon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the titles of <Sokak/俗樂> from the 『Goryeosa』 『Akji』, which concludes that <Sokak> were made to praise Goryeo kings and to honor their authority.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Sokak> is that 3/4 of them has region titles or regional backgrounds, including <Samguk Sokak(Sokak of the three kingdoms)>. It is quite different from Joseon <Akjang/樂章>, which has no regional titles. <Samguk Sokak(Sokak of the three kingdoms)> consisted of 14 songs, of which regions were chosen for the view of Goryeo. 5 of Goryeo <Sokak> were related to the Capital city of Gaegyeong(開京), 4 of <Sokak> were related to the supplementary capital cities(Byeolgeong/別京), such as Seogyong(西京), Nangyeong(南京) and Jangdan(長湍). 2 of <Sokak> were related to the sacred places of Saseon(四仙, four immortals, the famous four Hwa'rangs in the Silla dynasty), whose successors had great roles in Palgwanhoe(八關會).

The editors of 『Goryeosa』 didn't delete or distort the songs for the Confucian ideological reason. However, they made the context of the <Sokak> incomprehensible and ambiguous by editing the meanings: such as by contraction, selective exaggeration, and ambiguous explanation. In some cases, they reduced the meaning of the songs by changing the titles. Ak/樂(royal music) was supposed to eulogize the present political power, so it had to be replaced by new one in the new dynasty. This was a universal aspect of the politics of royal music.

keywords: Gaegyeong, Byeolgeong, Seogyong, Nangyeong, Jangdan, Saseon.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
